

監獄으로 들어가면서

- 獄門의 送迎 중 -

[新民] 제2권 12호 (1926년 12월호)

눈발을 부르는 무악재 바람이 쌀쌀히 불어온다. 그 바람 고지에서 떨고 있는 시커먼 西大門刑務所 앞에서 우리 不自由한 言論의 犧牲者 두 同志를 送迎하게 되었다. 하나는 朝鮮日報 筆禍事件의 犧牲者인 同紙 印刷人이었던 金炯元君의 刑期四個月을 마친 出監이오, 또 하나는 東亞日報 筆禍事件의 犧牲者인 同紙主筆 宋鎮禹君의 六個月의 體刑을 받은 入監이다. 우리는 그 出監을 慶賀하여야 할는지 그 入監을 싫다하는가 慰勞하여야 할는지 나의 鈍筆을 옮기기에 자못 躊躇치 않을 수 없다. 그러면 犧牲者 自身들은 出監을 기쁘다 하는가 入監을 그 또한 알아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이들의 忌憚없는 感想을 紹介하여 보자.

監獄으로 들어가면서 - 宋鎮禹

勞農 露西亞로부터 朝鮮民衆에게 보내는 電文을 東亞日報에 譯載한 것이 내가今回 入監하게 된 筆禍事件인 것은 世上이 周知하는 일이라 이제 새삼스러히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입니다. 該電文의 原意가 目下나 또는 未來를 云謂하는 것이 아니라 過去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別로 拘碍될 것이 아닐 줄 믿고 다만 信實히 報道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所謂 保安法 違反이라는 罪가 되어 司法處分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首肯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 어디까지나 法에 依하여 다투어 보았으나 結局 上告審에서까지 敗訴를 當하였으니 이제는 抗拒無路라, 刑을 受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二十四個月의 監獄經驗이 있으니 이제 새삼스러히 獄苦를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監獄을 刑務所라 改稱한 以後 內部에도 많은 改善을 하였단니까 曾往보다도 오히려 지내기는 낫겠지요. 囚人生活의 第一 어려운 冬期에 入監케 된 것은 肉體를 위하여 좀 不幸한 일이나 그亦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싸워볼 餘地 없이 그만 囚人生活에 들어가려고 覺悟를 하고나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에게서는 多幸한 點도 있습니다. 한동안 險惡한 世波에 부대끼고 난 心身을 그윽히 慰勞할 機會라고 생각합니다. 散漫한 情神을 收拾하여 修養함에는 人間事會와 別交涉이 없는 獄舍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社會가 안 그러리까마는 우리 社會에는 너무도 紛糾와 反目이 많습니다. 同族끼리는 勿論 甚하면 同志間에도 서로 中傷과 批難을 일삼는 例가 또한 적지않은 것은 참으로 寒心한 일입니다. 이런 點에서 그 높디높은 붉은 墻壁너머의 別려있을 此生地獄의 光景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나지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골머리 아픈 우리 社會로부터 그윽한 避難處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萬一 내가 우리 社會의 어떤 一部에서 무슨 批難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入監은 그 非難을 緩和 或은 消滅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心身修養期 또는 어떤 意味로의 隱居期인 半年이라는 受刑期를 가장 意味깊게 보내고 나오려 합니다.